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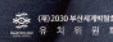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이 정 재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 유치해

모르셨죠?
우리가 알고있는 엑스포보다 5년 주기 '등록엑스포', 부산이 처음입니다.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아드를 이기고 지구촌 3대이벤트를 대한민국이 완성할 수 있도록-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부산 유치해"를 외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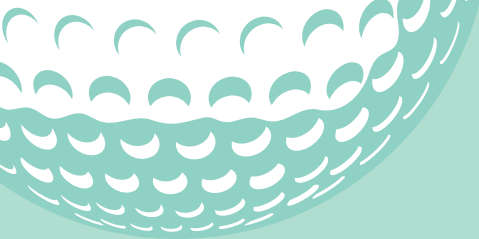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 03 Vol. 41

Vol. **41**
2022. 03

부산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공도협회
박운봉 원로

구·군체육회를 가다
수영구체육회

부산 스포츠 기지단 에세이
친속하면서도 낯선
스포츠 '양궁'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CONTENTS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41**
2022. 03

발행일 2022년 3월 25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41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성기환,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도희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Instagram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

건강한 육체

04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공도협회 고문
박운봉 원로

08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스키협회 제13대 회장 김무성

12

부산스포츠 히어로

연천중학교 씨름부

16

달려라 부산체육

피닉스스쿼시동호회



04

강

강인한 정신

20

부산체육이야기

코로나 시대,
부산체육계 대처방안

24

스포츠 in 과학

스포츠에서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28

구·군체육회를 가다

수영구체육회

32

이슈 앤 포커스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8

한

한마음 광장

36

내일은 체육왕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

40

스포츠 PLUS

매너 갖춘 신사의 스포츠 골프

44

부산 스포츠 기자단 에세이

친숙하면서도 낯선 스포츠
'양궁'

46

슬기로운 건강생활

흡연과 건강



36

생

생생한 소식

48

BSC 뉴스

50

부산 체육 관련학과·대학원 소개

신라대학교 체육학부

52

이달의 책

2030 축의 전환

54

구·군체육회 소식

56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58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식

59

부산공공스포츠클럽, 회원종목단체 소식



40

평생의 동반자, 국궁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원동력 되다

제33회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 준우승
부산광역시궁도협회 고문
박운봉 원로



한민족은 예부터 활 잘 쓰는 민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과의 인연이 깊다.
한국 전통 궁술인 '국궁(國弓)'은 일제강점기에 그 명맥이 끊어질 뻔 했지만 해방 후 다시 인기를 얻어
지금은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다.
30세에 국궁을 시작해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고 말하는 박운봉 원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국궁과의 아쉬웠던 첫 인연

박운봉 원로는 중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당시는 중학교가 6년제였다.) 통영에 여행을 갔다가 처음 국궁을 접했다. 한산도 어느 활터에서 어르신들이 한복 또는 양복을 입고 활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여 그중 한 어르신에게 다가가 “저도 한 번 썩볼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분이 “부산에 가면 천마산 중턱에 천마정이라는 활터가 있는데 그곳을 찾아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직 어리다며 사회생활 좀 하다가 다시 찾아오라며 거절을 당했어요. 당시만 해도 활과 화살이 매우 비싸고 귀해서 아무리 집안이 넉넉하다 해도 학생 신분으로는 국궁을 배울 만한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졸업 후 서울에 올라가 공무원이 되어 한동안 국궁에 대해 잊고 살았다. 하지만 구청에서의 공무원 일은 재미가 없었고 자신의 적성에 잘 맞지 않았다.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방향을 많이 했다. 그러다보니 가장으로서 집안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고 결국 이혼의 아픔까지 겪게 됐다. 그 후 그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광복동에서

귀금속점을 하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고향에 내려와 가업을 물려받게 됐다.

파락호를 새 사람으로 바꿔준 국궁

그렇게 다시 안정을 조금 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삶의 의미나 보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때 관심을 가졌던 국궁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수소문 끝에 옛날에 찾아가던 천마정이 무덕정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1962년, 그의 나이 서른 살 때 무덕정에서 정식으로 국궁에 입문하게 됐다.

무덕정에서 활쓰기를 가르쳤던 그의 스승은 “어렵게 배우면 평생 동안 쉽게 활을 쏘게 될 것이고, 쉽게 배우면 오래 가지 않아 그만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어렵게 배우더라도 계속 활을 쏘고 싶다고 했더니 스승은 “알았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내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국궁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해이한 삶을 살면 과녁에 화살을 제대로 맞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이 바로 알아차리시고 발로 차거나 전통(화살을 넣는 통)으로 때리곤 하셨어요. 진짜 아프라고 때린 건 아니고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였지요.(웃음)”

처음 시작할 때는 활도 없어서 선배들이 쓰다가 뿔이 부러진 활을 물려받아 고쳐 썼다. 엄한 스승님 밑에서 어렵게 국궁을 배우던 그에게는 점점 더 활을 잘 쏘고



밀양대회 우승 3관왕 (1965. 10. 17)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술도 절제하면서 건전한 삶을 살게 됐다. 재혼에도 성공해 지금까지 잉꼬부부로 잘 살고 있다.

활과 함께했던 잊지 못할 추억

박운봉 원로는 지금까지 제33회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 준우승이 개인 최고 성적이고 별로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다며 겸손해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꼽으라면 국궁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을 때 참가했던 1965년의 밀양대회였다. 당시 부산은 전국대회에 나가면 서울과 함께 꼴찌를 다투던 때였다. 그런데 그 밀양대회에서 무덕정 5인조가 출전하여 시도대항전, 단체전, 정대항전 등 무려 세 부문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금도 믿기 힘든 기적적인 승리였다.

“1988년 아산 현충사에서 열렸던 제31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궁도대회도 잊지 못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앞에서 활을 쏘는데 추첨을 통해 서울 선수가 첫 번째, 제가 두 번째로 쏘게 됐죠. 서울 선수에 이어 저까지 모두 과녁 잘 맞았는데 그 이후 다른 시도 선수들이 전부 잘 못 맞힌 거예요. 그러자 노 대통령이 “역시 서울, 부산이 대단하구만!”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그때도 서울과 부산은 전국에서 꼴찌를 다투고 있던 때였습니다.(웃음)”



석호정



동두전대회 (흰옷 정장)

선수로서의 활약뿐 아니라 부산 국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도 지대하다. 수영정에 출사하던 때에는 지금의 사직정의 설계, 부지 선정, 건립 등에 큰 역할을 했다. 건립 후에는 사직정이 제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기여를 했다. 부산광역시궁도협회 및 사직정의 고문도 맡았다. 또한 낙동정, 구덕정에도 출사하여 부산의 거의 모든 활터에 그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부산 국궁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파

박운봉 원로는 주위에 늘 국궁을 해보라고 추천한다. 심신수련에 좋은 스포츠로 평생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나이 90세이고 녹내장을 앓아 시력도 좋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활터에 나와 활시위를 당긴다.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힘에 맞추어 쏜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연세에 밖에 다니는 것도 힘겨워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성적이 안 나오면 내일 한 번 다시 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온다. 어느 순간부터는 과녁에 잘 안 맞아도 활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즐거운 놀이가 됐다.

“처음 국궁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기본자세와 호흡 방법부터 정확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쏠 수 있어요. 빨리 과녁에 맞기 위해 조바심을 내면 안

됩니다. 또한 함께 활을 쓰는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고 서로 험담이나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심신수련의 일부이지요.”

부산에는 서대신동의 구덕정, 삼락동의 낙동정, 광안4동의 수영정, 거제2동의 사직정, 김해공항 내 해성정을 포함해 총 5개의 국궁장이 있다. 초심자들은 이 활터 중 한 곳에 찾아가면 국궁에 입문할 수 있다. 어느 곳이든 다 좋지만 박운봉 원로는 주차 공간이 넉넉한 낙동정과 다른 체육시설과 함께 있어 여러 모로 여건이 좋은 사직정을 추천했다.

올해로 활을 쏜 지 60주년이 된다는 박운봉 원로. 국궁을 통해 지금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부산 국궁 발전과 저변 확대에 힘을 더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PROFILE

주요 이력

- 부산광역시궁도협회 고문 역임
- 사직정 고문 역임
- 수영정 5~6회 임원 역임

주요 경력

- 1965. 10. 17. 밀양대회 시도대항전, 단체전, 정대항전 우승
- 1991. 12. 6. 제28회 전부산남녀친선궁도대회 개인전 우승
- 2000. 4. 19. 제33회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 노년부 개인전 준우승
- 2002. 7. 28. 제41회 전부산궁도대회 노년부 개인전 우승
- 2008. 9. 28. 제54회 전부산남녀친선궁도대회 개인전 우승



열정적 노력으로 부산 스키의 내일을 꿈꾸다

부산광역시스키협회 제13대 회장 김무성

전 국민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올림픽은 끝났지만 알파인, 크로스컨트리 등 다양한 스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뜨겁다.

2021년 1월 부산광역시스키협회 제13대 회장으로 김무성 (취경원필드 대표)가 취임하면서 활기찬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스키협회는 새 리더의 취임 후 우수 엘리트 선수 발굴·육성과 대회 개최, 스키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무성 회장을 만나 협회 활동과 스키에 대한 열정을 들어보았다.

활기찬 협회, 공감하는 운영

조경학을 전공한 김무성 회장은 2010년 (취경원필드)를 설립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전국 각지에서 골프장, 아파트 등의 조경·건설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평소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실외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산광역시스키협회와 인연이 닿게 되어 지난해 2월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김무성 회장은 스키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체육 단체들이 운영 방식이나 분위기 등에서 다소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회장 취임 후 변화를 주도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활기찬 협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선수,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공감할 기회가 많아졌고 이를 협회 운영에 잘 반영하려고 한다. 체계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업무 처리로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지만,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는 세련되고 심플한 운영 방식으로 스키협회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회장은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국내 알파인 스키의 최강자 강영서 선수 이야기를 꺼냈다.

“강영서 선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날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스키 국가대표 선발 방식이 이전과 비교해 약간 바뀌어서 선발전 당일의 컨디션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발점에서 서 있는 강 선수의 얼굴이 긴장과 부담감으로 가득해 보였지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대표에 선발되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올림픽 기간에 강 선수와 문자로 안부를 자주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강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부상이니 괜찮다고 말하는 강 선수의 의연한 태도에 곧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강영서 선수는 올림픽 직후인 2월 23일 열린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46초 42의 기록으로 여자 일반부 슈퍼대회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무성 회장은 강 선수가 연이은 큰 대회로 힘들 법도 한데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 자랑스럽고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다양한 스포츠를 섭렵한 통찰력

김무성 회장은 부산광역시스키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스키에 관심이 많고 자주 즐기는 스키 마니아였다.

“제가 십 수 년 전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스키를 처음 접했어요. 새하얀 설원 위에서 스키를 타며 온몸으로 차가운 바람을 느끼는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지며 오

랜 시간 고민하던 근심과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 이후로 복잡한 생각이 들거나 잘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스키를 즐겨 타곤 했어요. 요즘은 순수하게 스키라는 스포츠 자체가 좋아서 매년 시즌권을 구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회장은 취임 이후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는 강원 지역 스키장을 자주 방문해 적극적으로 격려했다. 특히 어린 나이의 초등부 선수들이 묵묵히 훈련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해 보였다고. 선수들을 만나 격려하고 나면 그의 마음에도 좋은 에너지가 전해져 행복했다고 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여러 차려 오고가는 열정적인 모습에 선수와 협회 관계자들은 많은 힘을 얻었다.

김무성 회장은 스키 외에 검도, 자전거도 수준급으로 즐기는 스포츠맨이다. 검도협회를 오래 지낸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검도는 이제 그의 취미이자 특기가 되었다. 자전거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가볍게 운동하다 50~70km에 달하는 산길을 달리는 MTB(산악자전거)까지 마스터했다. 김무성 회장은 MTB를 타면서 다양한 특성의 산길



을 많이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에게 훈련 장소를 추천해 주기도 한다.

초등학교 스키부 창설로 연쇄 효과

코로나19는 스키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스키 선수들이 실외에서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집중 훈련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다. 또한 각종 대회 참가나 협회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준비할 때도 부수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스키협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충분한 조사 및 예측을 통해 매년 훈련 및 대회를 진행했다. 협회 관계자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쓴 탓인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상황은 없었다. 향후 이어지는 각종 훈련과 대회도 주도면밀하게 잘 준비해 방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회장은 ‘성공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노력의 힘을 믿고 묵묵히 달려왔기에, 안정적 기업 운영-스키협회 성과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임기 중 초등학교에 스키부를 창설하겠다는 굳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이 많이 육성되어야 이것이 전문체육 교육의 근간 구축으로 이어지고, 스포츠 클럽 활성화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린 선수들이 학교에

스키부가 없어 외부 기관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이를 위해 교육청과도 업무 협력을 긴밀하게 할 생각입니다.”

스키부가 창설되면 필연적으로 지도자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스키부 창설을 통해 기본 환경을 만든 후 지도자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도자가 부족해 학생 훈련 프로그램 효과가 100%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와 함께, 스키 종목을 세분화한 청소년 대상 캠프를 열 계획이다. 올해 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스키 캠프를 기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 모두 취소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지리라 기대하며, 캠프를 통해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 쉽게 접하기 힘든 스키 종목을 지도해 대중화에 힘쓸 것이라 말했다.

부산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설상 종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김무성 회장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및 홍보를 통해 이를 극복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초등학교 스키부 창설, 클럽 활동 활성화에 적극적 홍보 전략을 더해 차근차근 부산 스키의 대중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다른 열정과 에너지로 부산광역시스키협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김무성 회장과 관계자들의 모습을 보며 동계스포츠의 싹을 강자로 떠오르는 부산의 미래를 그려본다.





36년 역사 속 빛나는 땀방울 연천중학교 씨름부

제18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 1, 3위
제7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2위

연천중학교 씨름장은 모래판 위에 펼쳐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씨름장 한 쪽 벽에 나란히 걸려 있는 여러 개의 살바에는 그간 열심히 노력하며 땀 흘린 선수들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36년 긴 역사 속에서 씨름의 명맥과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온 연천중학교로 가본다.

최고의 역사, 최선의 노력

씨름은 살바를 잡고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민속놀이이자 운동경기이다. 손기술·다리기술·허리기술·혼합기술 등 온몸을 움직여 힘과 기술을 겨루게 된다. 때문에 기본 체력, 기술, 정신력이 모두 중요하다.

연천중학교 씨름부는 1986년에 창단되어 36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부산지역 중등 씨름부 중에서 최고 역사를 가졌다. 긴 역사 때문에 실업팀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고, 이들의 격려 메시지도 자주 받는다. 연천중 씨름부는 3월에 들어온 새내기를 포함해 현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등 씨름부 선수 치고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연천중 동문인 박상도 교사는 2019년 부임했을 때 감회가 남달랐다.

“모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다 보니 책임감이 더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에게 편안한 선배이자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만 강요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박 교사는 최상호 교장 선생님이 2020년 부임 직후부터 씨름부 선수와 운동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교장 선생님은 씨름장의 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섰고, 선수들의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씨름부 전용 ‘연송(蓮松) Fitness Gym’을 개관하여 적극 지원했다. 이런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연천중학교 씨름부가 많은 힘을 얻었다.

‘자율성’ 바탕으로 연이은 성과

3학년 정상원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안락초 재학 시절 전국 대회 1위를 여러 번 휩쓸어 많은 화제가 되었다. 연천중에 와서도 좋은 성적은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제18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 중등부 경기에서 경장급(-60kg) 우승을 차지했다. 정 선수는 결승에서 상대 선수를 화려한 안다리로 제압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개최된 ‘제7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듬직하고 의젓한 인상으로 주장을 맡고 있는 3학년 이혜성 선수는 ‘제18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 중등부 용사급(-80kg)에서 3위를 차지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씨름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가 안락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친한 형과 운동장에 뛰어 놀다가 씨름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씨름부에 한 번 놀러오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훈련하고 있는 씨름부 형들의 다부진 몸을 보니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도 씨름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하게 되었죠.”

정상원 선수는 친형이 씨름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형도 씨름을 해서 모르는 게 생기면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아요. 형제이다 보니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지요. 아버지도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구요.”

두 선수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연천중 씨름부의 장점은 ‘자율성’이다. 박상도 교사가 평소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모든 선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천편일률적인 훈련이 아니라 각자 스타일에 맞춰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고.

이혜성, 정상원 선수에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극복하는 비법이 있는지 물었다. “저는 혼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제가 어떤 선수랑 시합이 붙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기술을 걸지 상상을 계속 합니다. 실제 경기에서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혜성이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자주 해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도 자만심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겸손하라고 마인드 컨트롤도 늘 하죠.”

체급 장점 살려 단체전 메달

씨름은 경장급(-60kg), 소장급(-65kg), 청장급(-70kg), 용장급(-75kg), 용사급(-80kg), 역사급(-90kg), 장사급(-130kg) 등 총 7개 체급으로 구성된다. 2, 3학년 학생들은 신기하게도 각 체급에 한 명씩 골고루 분포해 있다고. 그래서 대회 출전할 때 체급별 선수 구성에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



주요 수상 내역

- 1988년 제42회 전국장사씨름선수권대회 단체 3위
- 1989년 제43회 전국장사씨름선수권대회 단체 3위
- 1990년 제4회 전국시도대항장사씨름대회 단체 준우승
- 1992년 제21회 KBS 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우승
- 제22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 준우승
- 제29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준우승
- 2019년 제33회 전국시도대항장사씨름대회 경장급 우승, 용장급 우승
- 2021년 제18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 경장급 우승, 용사급 3위
- 제7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경장급 2위



제7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제18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

씨름대회 단체전에 출전하려면 최소 7명의 선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간 선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해부터 가능해져 전국대회 단체전 참가를 시작했다. 이에 고무되어 선수들의 훈련 분위기가 더 활기차졌고 운동도 더욱 열심히 집중하고 있다고. 올해 목표는 전국대회 단체전 메달권에 드는 것이다.

박상도 교사에게 요즘 선수들의 분위기가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물었다.

“예전에는 선수들이 짜여진 훈련 프로그램 위주로 운동하고, 교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선수들도 물론 훈련 프로그램과 교사의 조언에 충실히 따르지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유튜브 등에서 훈련 영상을 찾아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요즘 학생들의 정보 검색 능력이 뛰어나서 참고 자료를 아주 잘 찾더라고요. 그리고 훈련 내용이라든지 보강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박 교사는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던 정상원, 이혜성 선수 외에도 메달을 딸 실력이 충분한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매년 초 씨름부에서는 한 해 동안 각자 이루고 싶은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한다. 박상도 교사는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각자 목표를 꼭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Mini Interview

최상호 교장 선생님

최상호 교장 선생님은 체육담당장학관을 지낸 전문체육 전문가로서 평소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누구보다도 체육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20년 부임 이후 괄목할 만한 씨름부 발전을 이끌고 있다.

“저는 박상도 선생님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요즘 씨름부 선수 확보가 쉽지 않는데) 10명의 우수 선수를 확보하여 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전국대회에서 1, 2위 등 우수한 입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씨름장 환경개선(씨름장 현대화, 모래 교체, 연승 피트니스 짐 등)을 위해 학교 자체예산과 교육청, 대한씨름협회, 시체육회 등 많은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씨름선수들에 대한 교육관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천중 씨름부 파이팅!!!”



불사조와 같은 열정으로 코트를 누비다

피닉스스쿼시동호회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작은 고무공을 따라 코트를 누비는 선수들, 스윙을 할 때 마다 팡팡거리는 파열음.
 누구나 스쿼시를 한 번 보면 스쿼시의 매력에 푹 빠져들 것 같다.
 스쿼시의 진면목을 알기위해 부산을 대표하는 스쿼시 동호회 '피닉스스쿼시동호회'를 만났다.
 스쿼시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7년 역사 가진 부산의 대표 스쿼시 동호회

테니스와 월핸드볼(Wall Handball:아이리시 핸드볼)을 혼합한 운동인 스쿼시는 공의 크기·무게 등은 차이가 있지만, 테니스처럼 라켓을 이용해 공을 주고받는 운동이다. 다만, 중앙에 네트는 없고, 벽으로 둘러싸인 코트에서 벽을 향해 공을 쳐서 주고받는다. '스쿼시(Squash)'란 말은 으스러진다는 뜻으로, 고무로 된 속 빈 공이 벽에 세게 부딪혔을 때 으러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데서 비롯됐다.

한국의 스쿼시 역사는 30년이 조금 넘는다. 한국의 스쿼시는 아시아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현재 한국 스쿼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 개인전 동메달, 2010년과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 단체전 동메달,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준우승, THAMES INTERNATIONAL 2019 우승, Pacific Toyota Cairns Squash International 2019 준우승을 했다.

피닉스스쿼시동호회도 한국 스쿼시의 성장과 궤를 함께한다. 부산의 대표적인 아마추어 동호회인 피닉스스쿼시동호회는 2005년 몇 명의 스쿼시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모여 만든 모임으로 회원은 24명 정도다. '불사조' 또는 '불새'를 뜻하는 '피닉스(Phoenix)'라는 이름은 1대 회장이 지은 이름으로 '불사조와 같은 열정'을 뜻한다. 동호회는 신입 회원부터 오래된 회원까지 두루 구성돼 있으며 연령대는 30~50대로 남녀 비율은 6대 4정도다.

피닉스스쿼시동호회는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으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스쿼시를 즐기고 있다. 피닉스스쿼시동호회에서 즐기는 스쿼시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같은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 함께 운동하고, 공감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데, 동호회는 17년 역사를 가진 만큼 끈끈한 유대관계로 이어져 있다. 일요일의 제외하고 거의 매일 모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이다. 그리고 2019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동하셨던 정대훈 선수

가 코치로 활약하고 있어 회원들의 기량은 점점 향상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와의 친선경기는 동호회의 활력

피닉스스쿼시동호회가 다른 동호회와는 조금 다른 점은 해외친선경기에도 활발히 참여하면서 스쿼시의 세계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호회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국제교류전에 매년 참가하며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 등의 국가로 친선경기를 떠났다. 처음에는 해외도시를 관광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스쿼시 동호인과 선수들을 만나고 어떻게 경기하는지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 스쿼시 강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선수들의 실력도 뛰어났지만 말레이시아 국립체육회 차원에서 지원도 많아 다양한 점을 배울 수 있었다. 회원들은 외국을 나가면 언제나 외교사절단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외선수들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 피닉스스쿼시동호회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경기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에선 제주도, 거제도, 김해, 울산, 양산 등 동남권 동호인들과 친선교류경기를 많이 열고 있다. 지난해 봄에는 해운대스쿼시연맹이 주최하여 피닉스스쿼시동호회 코트에서 해운대구청장배 스쿼시 대회를 개최했다. 100여 명이 좀 안 되는 동호인들이 모여 스쿼시 경기를 즐겼다. 동호회는 앞으로 스쿼시 대중화를 통해 100명



상해교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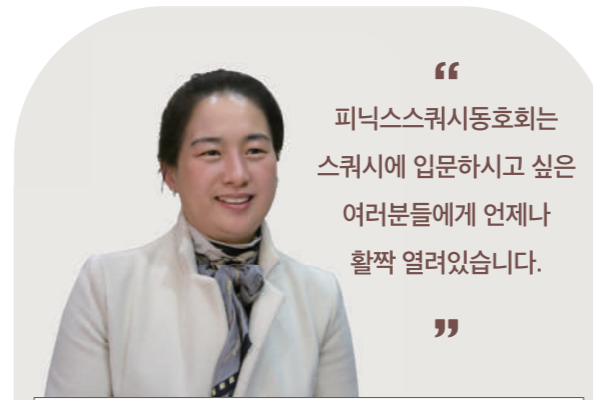
이상의 동호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동호회 회원들은 정부차원에서 스쿼시 대중화를 위해 부족한 경기장을 많이 만들어 주길 기원했다.

스쿼시 대중화를 위해 피닉스대회 개최 계획도

피닉스스쿼시동호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설연습장을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운영해왔다. 하지만 해운대교육청 등의 스쿼시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운영이 제한되고 스쿼시대회 또한 열리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스쿼시 대회는 스쿼시라는 운동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홍보효과가 크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대로 피닉스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회에는 새내기든 실력자든 할 것 없이 모든 동호인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홍보를 해 스쿼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부산 스쿼시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상해교류전 체육관



“ 피닉스스쿼시동호회는 스쿼시에 입문하시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

Mini Interview

김정미 회장



스쿼시는 매력이 넘치는 스포츠입니다. 흔히 스쿼시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가의 운동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만, 사실 라켓과 볼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코치에게 배우면 남성의 경우 3개월 이내, 여성의 경우 6개월~9개월 이내에 스쿼시를 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쿼시는 벽을 향해 공을 치는 종목이어서 혼자서도 재미있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쿼시는 또 자신의 체력에 맞게 운동량 조절이 가능해 여성 또는 중장년층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체중조절을 통해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건강과 체중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저희 피닉스스쿼시동호회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운동하는 동호회입니다. 스쿼시에 입문하시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현재는 2019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동하셨던 정대훈 선수께서 코치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기초부터 실전까지 꼼꼼히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피닉스스쿼시동호회는 코로나19 와중에도 연습에 정진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아 앞으로 경남지역 스쿼시모임 간 친선경기, 국제교류전 등에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스쿼시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피닉스스쿼시동호회 연혁

- 2017 제1회 통합부산광역시스쿼시연맹 회장배 여자 40대 이상부 2위
- 2017 제1회 통합부산광역시스쿼시연맹 회장배 남자새내기 3위
- 2017 제1회 해운대구청장배 스쿼시동호인대회 남자복식 1위
- 2017 제1회 해운대구청장배 스쿼시동호인대회 혼합복식 2위
- 2017 제1회 해운대구청장배 스쿼시동호인대회 여자복식 3위
- 2017 제2회 해운대구스쿼시연맹회장배 여자복식 1위
- 2017 제2회 해운대구스쿼시연맹회장배 여자복식 2위
- 2017 제6회 사하구청장배 생활체육 스쿼시 경기대회 여자 메이저부 3위
-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선발전 남자 40대부 2위
- 2018 제2회 해운대구청장배 스쿼시동호인대회 남자단식 1위
- 2018 제2회 해운대구청장배 스쿼시동호인대회 혼합복식 1위
- 2018 제2회 해운대구청장배 스쿼시동호인대회 남자복식 2위
- 2018 제3회 해운대구스쿼시연맹회장배 혼합복식 2위
- 2018 제3회 해운대구스쿼시연맹회장배 여자새내기 3위
-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여자 단체전 3위
- 2019 제4회 해운대구스쿼시연맹회장배 단체전 3위
- 2021 제4회 해운대구청장배 동호인 스쿼시 대회 남자복식 3위
- 2021 제4회 해운대구스쿼시연맹 대회 여자복식 3위
- 2021 제4회 해운대구스쿼시연맹 대회 혼합복식 3위



복식친선경기



코로나 시대, 부산체육계 대처방안

코로나19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의 전반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주장하듯,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하나의 역사적 변곡점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 _ 임새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스포츠경기를 '직관(직접관람)'이 아닌 '집관(집+관람)', '방구석 1열 관람'

이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는 체육 분야에도 적용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체육 분야의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고, 이와 같은 경험은 향후 체육 분야의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어느덧 코로나19를 경험한지 2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산의 체육 정책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그리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 내외의 주요한 환경 변화(예를 들어, 스포츠 3법 시행 등)에 대비해 부산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산의 체육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가? 그리고 부산 체육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 19의 일상화와 스포츠 도시 부산

부산은 국내 주요 프로스포츠 중에서도 야구, 축구, 여자농구 등 3개 구단을 유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도시이다. 그러나 지속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 프로대회경기가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등 스포츠산업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관중으로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 스포츠경기를 '직관(직접관람)'이 아닌 '집관(집+관람)', '방구석 1열 관람'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오픈챌린저테니스대회, LPGA 정규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부산세계탁구선수대회,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경기대회,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등 각종 국제스포츠대회도 대회 일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으며, 이는 부산 체육에 있어 방역체계 강화 및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개최된 2021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K-방역을 접목하여 "COVID-19 FREE BUSAN" 브랜드화 하였으며, 코로나19 시대에 스포츠 도시로서의 부산 미래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체육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방역체계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방역 가이드라인 및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국제스포츠대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생활체육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재난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 혹은 종목 특성별 체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및 방향성을 부산시의 실정에 맞춰 개발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19 이전 보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대회뿐만 아니라 생활스포츠대회의 방역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나아가서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스포츠 분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스포츠의 뉴 패러다임을 반영한
 부산 체육정책이 수립 및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위드 코로나 시대, 스포츠 산업의 단계적 회복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부산의 스포츠산업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스포츠시설업은 직접적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던 스포츠시설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스포츠시설업은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현장 영업 제한으로 큰 손실을 입었으며, 많은 스포츠시설업 종사자들은 방역강화라는 명목 하에 일자리를 잃거나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스포츠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면서, 스포츠 관련 제품 수요도 줄어들면서 스포츠 산업(특히, 스포츠 용품 제조업)에도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시설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비대면 온택트(온라인+언택트)가 적용된 스포츠 산업의 시장 규모와 비중은 급속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부산시는 비대면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미래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접목한 융복합기술의 개발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00억 원, 시비 40억 원을 체육 분야에 투입하였다.

2년간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스포츠 활동에 대한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고 해서 다시 원래의 스포츠에 참여하던 형태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스포츠 분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스포츠의 뉴 패러다임을 반영한 부산 체육정책이 수립 및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스포츠 영역을 고수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선도하는 스포츠 도시로서의 역할을 부산시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사회변화, 그리고 부산체육

코로나19 이후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이해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먼저,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변화 중 하나는 MZ세대의 등장이다. MZ세대는 휴가 혹은 여가시간을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해 보내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여행을 통해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서핑, 골프, 플로깅, 자전거 등 자연친화적인 신체활동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스포츠케이션(스포츠+베케이션(휴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산 체육도 이와 같은 MZ세대의 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체육정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들은 사회적 환경으로 야기된 극도의 경쟁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체육활동 참여는 경쟁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평생체육으로의 전환에 주춧돌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장 뜨거운 스포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환경친화적 여가스포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친환경이나 환경보호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스포츠 또한 자연친화적인 형태의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바다라는 천혜의 여가스포츠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산에 있어 이러한 자연친화적 스포츠 참여 경향은 부산이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부산시의 위상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마치며 : 체육분야를 선도하는 부산 체육이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던 4차 산업 혁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의 폭발적인 변화를 야기하였고, 비대면의 생활화, 개인 방역, 건강에 대한 관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문제 등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부산 체육은 다행히도 이러한 어려움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어려움들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도래한다면, 2020년 초, 우리가 경험했던 그야말로 팬데믹 상황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


2020년 초,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더욱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체육도 2년여 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따른 체육계의 급격한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성이 생겼다고 해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산 체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변화에 의해 야기된 스포츠상황에 대응한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체육 정책이 필요하다.



“
 여행을 통해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서핑,
 골프, 플로깅, 자전거 등
 자연친화적인 신체활동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스포츠케이션
 (스포츠+베케이션(휴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글_ 황한솔
서울시립대학교·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빅데이터(Big Data)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넘어 이제 미래산업의 원동력이라 할 만큼 큰 위력을 지녔다. 한국스포츠도 이제는 대통령후보의 스포츠분야의 대선 공약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가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스포츠에서 빅데이터란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스포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기록 수집·분석을 넘어서 다양한 미래 융·복합 산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성찰이 필요하다.

대선후보의 스포츠 공약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빙의 승부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후보들은 그만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니즈(Needs)를 반영할 수 있는 공약들로 흥미진진한 대선레이스를 펼쳤던 것 같다. 이번 대선후보의 스포츠공약을 살펴보면 재미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운동량을 측정하여 포인트 혹은 마일리지로 환산하여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돌려주는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스포츠복지공약을 제시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두 후보 모두 스포츠를 활성화하려는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주고 싶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마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융·복합정책”이라는 점일 것이다. 다만 필자가 생각할 때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공약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빅데이터 시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스포츠에 융합될 수 있을까? 결국 디지털화되는 스포츠시장을 어떻게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까운 사실은 조금 전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명단에 체육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스포츠공약>



1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상할 때 10대 국민은 물론 60대 국민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

2 체육인공제회 통해 은퇴체육인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사고보상 및 생애보상 및 은퇴보상 지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고령자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운동에 참여할 만큼 지역화폐로!

운동하고 얻은 스포츠 포인트 지역화폐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에 참여한 만큼 스포츠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환산하여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돌려주는 국민건강 복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월한 운동량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마트공은 아운에 근저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운동 여력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운영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 강원도 지역

빅데이터의 이해

사람들은 일단 “데이터”라는 말을 들으면 긴장한다. 우리가 흔히 논리나 이성적 추론을 할 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공한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으려한다. 여기에 “빅”이라는 말이 붙으면 더더욱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스마트폰! 사람들은 음성통화대신 다양한 SNS를 통해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TV 대신 OTT서비스를 골라보며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 여러분은 자신이 운동하는 장소에서 인증샷을 찍기도 하고 SNS를 통해 특정장소를 체크인하기도 한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행동을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체크하고 소통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빅데이터’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운동량을 체크하고 가는 곳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통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고도의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속제는 어떻게 기계를 작동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스마트하게 스마트기기를 사용할지 고민하고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마케팅 전략

사람들은 흔히 데이터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통계분석을 활용한 가치판단의 자료로 사용하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삶에서 데이터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기업은 가치 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운동량을 체크하고 가는 곳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의 삶에서 데이터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기업은 가치 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Google)의 예를 들어보자. 구글은 전 세계를 흰 바탕에 자기들 로고가 있는 웹사이트 하나로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구글의 서비스영역은 자율주행자동차부터 게임, 생활,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구글 웹사이트에 친절하게 남겨준 검색 키워드들은 개인의 웹사이트 행동데이터로 구글 서버에 기록되며 검색기록을 기반으로 확률 높은 키워드 광고들이 노출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용자의 빅데이터 기록은 단순히 데이터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확률 높은 마케팅전략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글이 막대한 자본이나 권력 없이도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스포츠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빅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소개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스포츠는 분명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소재임을 자각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인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함이 자명한 숙제라 할 수 있다.

글_황한솔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서울 시립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엘크루라는 마케팅 회사를 설립하여 스포츠 ICT에 기반한 스포츠 앱을 기획 제작하고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의 융복합을 시도하고 있다.



수영구체육회

아름다운 건강도시 '수영'을 위하여

아름다운 광안리해수욕장과 수영강변을 가진 수영구.

수영구는 광안리 바닷가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와 스포츠클럽, 해양레포츠 시설을 고루 갖춘 지역이다. 수영구에는 어떤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이 있을까. 수영구체육회를 만나 보자.

스포츠로 건강한 수영!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회!

수영구체육회는 2016년 3월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이 하나의 조직으로 융합돼 출범한 조직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법인설립을 마무리하고 '스포츠로 건강한 수영!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체육회는 현재 5,17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6명, 감사 2명, 이사 28명과 지도자 7명(일반지도자 4명, 어르신지도자 3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소속돼 있는 클럽은 게이트볼 등 13개 정회원 단체와 파크골프 등 2개 준회원단체, 풋살 등 9개 인정단체로 총 24개 단체 142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수영구체육회는 현재 관내에 따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은 없지만 수영구를 대표하는 체육시설로는 광안동의 수영구국민체육센터와 민락동의 수영구민체육센터(수영구스포츠클럽)가 있다. 이곳에서 수영, 헬스, 배드민턴, 요가, 필라테스, 댄스프로그램 등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광안리해수욕장에는 해양레포츠센터가 있어 전국 윈드서핑 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생활체육 실천으로 대중화에 앞장서다

기체조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 수영구체육회가 자랑하는 회원단체종목인 국학기공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선도시련법을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체계화한 프로그램으로 기체조, 단요가, 단전호흡, 기공을 통합한 생활체육이다. 국학기공은 근육의 긴장도를 적절하게 이완, 인체의 근육과 내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굳어 있던 관절과 인대를 풀어줌으로써 몸 안의 막혀 있던 경락과 혈관의 소통을 촉진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영구체육회 소속 국학기공 클럽은 9개로 18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부산시민체육대회나 어르신체육대회 등에 참여해 매년 수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최근에는 수영구와 함께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안리 SUPrise 스포츠 관광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UP는 'Stand Up Paddle Board'의 약자로 패들 보드는 일어서서 노를 저으며 타는 보드를 말한다. 수영구는 SUP와 관련된 대회,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뤄졌던 '광안리SUPrise Academy'는 일반인 누구나 이론·실전 교육을 통해 패들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돕는 패들보드 교육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수영구체육회는 수영구와 함께 광안리해수욕장을 활용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서핑, 제트스키, 카약 등 수상스포츠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15년째 이어져 내려온 '수영구민 걷기대회'

수영구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수영구민 걷기대회'가 있다. 15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이 행사는 시작할 때만해도 소수의 구민들만을 위한 행사였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수영구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황령산, 갈매길, 수영강변 등 바다, 강, 산을 배경으로 걸으니 구민들의 호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로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가장 최근인 2019년 행사 때에는 1,000여명이 참가하는 큰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수영구체육회는 구민 걷기대회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이전 유아,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근력, 스트레칭 수업이 어르신 체조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비대면 수업 등으로 대체됐다. 체육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근력, 스트레칭 수업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수영강,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광장을 이용해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광장수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황대성 회장

반갑습니다. 수영구체육회 회장 황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통합 이후 2019년부터 민선 1대 수영구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구민들이 보다 나은 여건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소재 체육관은 물론 개인 체육시설 등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최근에는 경로당과 장애인시설, 노인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근력키우기 수업 등을 전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광안리, 수영강 주변의 광장을 활용한 광장수업을 확대해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체육관과 학교시설 등을 동호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 인프라 확보에도 노력하고 광안리해수욕장을 이용한 수상 스포츠의 대중화를 통하여 수영구체육회 하면 수상스포츠가 그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자들

이교은(어르신지도자) _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체육지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체육지도를 통해 수영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주혜준(어르신지도자) _ 마스크를 벗고 반갑게 인사하며 웃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체육활동 지도에 더욱 땀 흘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현호(어르신지도자) _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고 어려움의 극복은 인생을 의미있게 만듭니다. 계획은 차질없이, 소통은 끊임없이 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여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신지숙(일반지도자) _ 항상 막내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9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더 좋은 운동이 될까. 운동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은 뭘까'를 고민하며 보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덕분에 건강해졌다.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는 참가자들의 기분 좋은 피드백에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노력하는 지도자, 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유귀연(일반지도자) _ 코로나19로 생활의 모든 부분이 바뀐 지금, 저는 어서 일상이 회복되어 전 구민들께서 수영구체육회와 즐거운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연구하겠습니다.

이주연(일반지도자) _ 생활체육은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체육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그동안의 노력이 구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지도자가 되어 구민들과 함께 건강한 삶과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세희(일반지도자) _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도 구민과 함께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 늘 소통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하며, 수영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겨울스포츠 그 축제의 향연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국내 최대 동계스포츠대회인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부산선수단은 총 2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5년 연속 종합순위 5위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썼다. 추운 겨울도 잊게한 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그 현장으로 가보자.



1 아이스하키 중등부 JR부산대표팀 2 여자일반 강영서 스키 3 남자고등부 김유빈 스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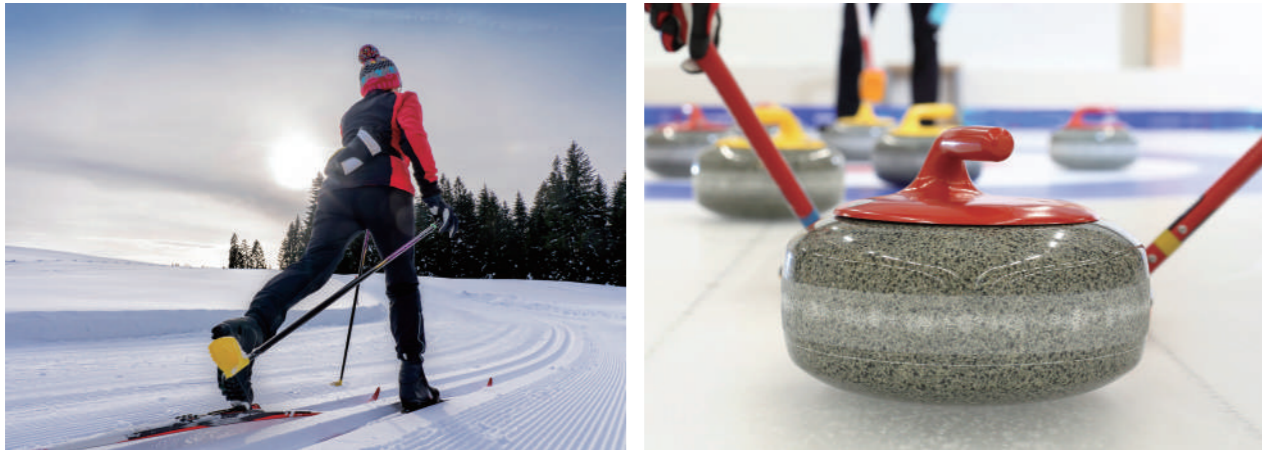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방역에 만전 기하다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지난 2월 25일(금)부터 2월 28일(월)까지 4일간 진행됐다. 올해 대회의 특징은 대회 장소가 서울, 경기, 강원, 경북으로 분산되어 열렸다는 점이다. 대부분 경기가 강원도 일대에서 열렸지만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등의 종목은 서울과 경기에서 진행됐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8개 동계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올해 철저한 방역 하에 2년 만에 개최됐다. 17개 시·도에서 출전한 8종목(정식 5, 시범 3) 4,056명의 선수단(선수 2,591명, 임원 1,465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열전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 부산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164명, 임원 66명 등 총 230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공식 행사인 개·폐회식을 개최하지 않고 경기는 무관중 속에서 진행됐다. 모든 참가자는 1일 1회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확인되어야 참가할 수 있었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공식 행사를 최소화하여 사적모임을 철저히 금지했다.





부산체육 꿈나무들의 선전...최고의 기량 뽐내다



부산선수단은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산악 등 총 6가지(정식 종목 5가지, 시범 종목 1가지) 종목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스키종목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유럽의 알프스 산악지방에서 발전한 스키인 알파인에서는 국가대표 강영서(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가 여자일반부 슈퍼대회전에서 부산의 첫 번째 금메달을 신고했다. 남초부 최범근 선수도 3관왕을 기록했다. 크로스컨트리 종목은 눈이 덮인 평지와 경사로를 달려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는 경기로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들이 선전했다. 크로스컨트리 남초부 전준상 선수는 4관왕, 크로스컨트리 여중부 허부경 선수가 4관왕을 달성한 것. 또한 빙상 피겨 여대부에서 송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고 아이스하키 중등부 JR부산대표팀이 전국동계체육대회 중등부 참가 사상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부산, 15년 연속 종합 5위 대기록 달성



부산선수단은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학생부 선수들의 선전 속에 종합 5위를 기록했다. 부산은 대회 총 득점 5,808점 중 421점을 받았다. 이는 4위인 전북보다 90점 낮은 점수이지만 6위인 대구보다는 95.5점 높은 점수다. 특히 크로스컨트리에서는 남초부 전준상 선수, 여중부 허부경 선수의 선전으로 종합 3위를 기록했다. 부산은 총 27개 메달을 획득했는데 금메달 1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8개를 받았다. 부산은 배점이 높은 단체종목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스키, 빙상 등 개인종목에서 선전해 15년 연속 종합 5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은 “동계종목 불모지인 부산이 15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준비해 준 선수와 가족, 종목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들 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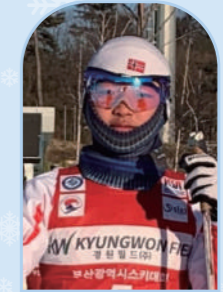
여러 선수들이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이번 대회 MVP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매스스타트 은메달을 차지했던 정재원(21 의정부시청) 선수가 선정됐다. 한국체육기자연맹 기자단 투표에 의해 MVP로 선정된 정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5000m, 10000m, 8주 팀추월, 매스스타트 종목에 출전해 전 종목에서 우승, 대회 4관왕을 수상했다. 정 선수는 “베이징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국내에서 가장 큰 대회인 동계체전에서 MVP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이 기세를 타고 ‘동계스포츠’하면 ‘정재원’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밖에도 김민석(23 성남시청) 선수는 1000m, 팀추월,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으며 1000m와 1500m에서는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에서 한국 타이기록을 세운 정동현(34 하이원) 선수는 슈퍼대회전, 대회전, 복합, 회전에서 우승하며 4관왕을 차지했다.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순위



구분	순위	득점	메달			
			금	은	동	합계
서울	2	871.5	47	52	64	163
부산	5	421	13	6	8	27
대구	6	325.5	11	9	10	30
인천	10	234	4	5	8	17
광주	14	91.5	0	1	0	1
대전	12	146	0	0	4	4
울산	15	67	2	4	4	10
세종	16	55	3	5	1	9
경기	1	1,184	101	103	64	268
강원	3	791.5	47	42	49	138
충북	9	247.5	3	4	13	20
충남	11	147	9	6	9	24
전북	4	511	20	19	21	60
전남	7	314	16	9	5	30
경북	8	259.5	3	4	3	10
경남	13	142	0	1	5	6
제주	-	-	-	-	-	-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다관왕 선수



전준상(스키)
크로스컨트리 4관왕
남초부



허부경(스키)
크로스컨트리 4관왕
여중부



최범근(스키)
알파인 3관왕
남초부



2013년 8월 설립되어 현재 사상구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신나는 사상스포츠클럽. 코로나19에도 선전하며 회원들과 스포츠클럽 선수들에게 신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이곳을 찾아 클럽의 설립취지와 현황,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봤다.

신나는 생활체육의 세계로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

클럽 소개

설립 10년 차 된 공공스포츠클럽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은 2013년 8월에 설립된 공공스포츠클럽(구, 종합형스포츠클럽)이다. 이곳은 부산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한편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됐다. 클럽은 현재 사상구국민체육센터에서 골프, 배드민턴, 수영, 아쿠아로빅, 요가, 필라테스, 탁구, 헬스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제 설립 10년 차가 된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은 시설 측면에서나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갖췄다. 사상구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19 이전에는 3,500여 명을 수용할 정도로 규모면에서 성장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00여 명의 회원 수를 유지하고 있다. 클럽의 현재 목표는 방역을 비롯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 기존 회원들에게 고품격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독일·영국서 선진 운영노하우 배워와

클럽이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여타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공간 사용에서 조금 다르다. 회원들이 같은 체육관을 사용하더라도 한쪽에서는 탁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쪽에서는 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일본, 독일, 영국 등을 방문해 선진 스포츠클럽의 운영방법과 노하우를 배워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에 맞게 적용한 좋은 사례이다. 향후 스포츠클럽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에서 배워온 노하우를 센터 운영에 맞게 더욱더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클럽은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운동을 통해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다. 한편 클럽은 전문선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수영선수 10~15여 명이 전문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골프도 45여 명 정도가 전문선수로 있지만 예산 관계로 올해는 전문선수 등록을 받지 않았다. 골프의 경우, 사상구국민체육센터에서 스윙과 같은 기초 자세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 전문선수들은 지난해 코로나19 관계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클럽이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회원들 기량 높아질 때 자부심 느껴

클럽 소속 직원들은 회원들의 기량이 높아져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기량으로 입선을 하거나 스포츠클럽지도자의 지도로 운동실력이 우수하게 성장해 처음 운동하는 생활체육인들에게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 스포츠클럽 지도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이에 클럽관계자는 전문선수, 스포츠지도자, 생활체육 동호인 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편
제
키
포
시
장
사
는
구
민
신



- (사)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 연혁**
- 2013. 06 종합형스포츠클럽 선정
 - 2013. 08 사단법인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 법인설립
 - 2014~2019 종합형스포츠클럽평가 최상위
 - 2015. 04 사상구국민체육센터 수탁운영 선정
 - 2016. 11 지정기부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 지정)
 - 2017. 10 부산 북부교육지원청 생존수영 운영 협약
 - 2018. 05 국민체력 100 시상체력인증센터 선정
 - 2019. 04 전국스포츠클럽 성과평가 우수클럽 표창 수상
 - 2021. 04 사상구국민체육센터 재수탁운영 선정

서비스 개선에 총력...사회적기업 성장 목표

클럽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쉬고 있는 부산시민을 다시 센터로 유입할 수 있도록 시설 교체 등의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클럽은 향후 2024년 사상구에 또 다른 체육센터가 생기게 되면 수탁을 맡아 사상구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공유해 부산시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 생산·판매까지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스포츠클럽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나는사상스포츠클럽이 사상구의 대표 자랑거리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G
O
L
F

매너 갖춘 신사의 스포츠 골프

골프는 다수의 홀이 갖춰진 경기장에서 정지된 공을 골프채로 쳐서 홀에 넣는 스포츠이다. 골프는 매우 복잡한 경기로, 선수들은 변화하는 날씨에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멋진 매너로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골프에 대해 알아보자.

중세 스코틀랜드서 탄생... 2016년부터 올림픽 정식종목 부활



골프의 기원은 의견이 분분하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깃털로 채운 가죽공을 구부러진 막대로 치는 '파가니카'라는 놀이가 있었으며, 중국에서도 한나라 시절 골프와 유사한 공놀이가 행해졌다는 설도 있다.

근현대적인 골프의 형태가 갖춰진 것은 15세기 무렵인 중세 스코틀랜드에서였다. 골프(golf)의 어원 역시 스코틀랜드 고어인 고프(goulf)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정설이다. 고프는 곧 '치다'라는 의미이며 영단어 커프(cuff)와 뜻이 같다. 한 때는 골프에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2세가 신하들이 활쏘기 훈련에 소홀한 채 골프에만 열중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었다. 그러나 골프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졌고 급기야는 1754년 22명의 귀족들이 모여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 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1834년 윌리엄 4세가 여기에 로열 앤드 에이션트 골프 클럽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이곳이 골프의 기본 규칙을 명문화하면서 골프의 보급은 급물살을 탔다.

골프는 1900년 파리와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6년 리우올림픽부터 다시 정식종목으로 부활했다.

심판이 따로 없어... 에티켓이 무엇보다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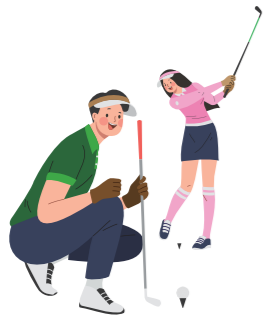


골프선수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매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듯 골프는 일반인들의 연습 라운딩에서 프로선수들의 투어 대회에 이르기까지 예절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따라다닌다. 오죽하면 '골프 에티켓'이라는 제목의, 말 그대로 골프 에티켓만을 다룬 책이 따로 존재할 정도다.

국제적으로 통용된 '골프 규칙'의 제1장 역시 에티켓으로 문을 연다. 에티켓은 '골프는 대부분 심판원의 감독 없이 플레이된다. 골프 경기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배려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의 성실성 여하에 달려 있다'라는 서론부터 출발해 '불필요한 잡음을 내서 그들의 플레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처럼 선수들 간의 예절, '플레이어들이 만든 움푹 팬 곳이나 발자국을 모두 잘 메워서 평탄하게 골라놓아야 한다' 같은 시설물 이용 질서까지 꼼꼼히 기재됐다.



정해진 구멍에 넣어
타수가 적은 사람이 승리



골프 경기는 코스 위에 정지하여 있는 공을 14개의 클럽으로 잇달아 쳐서 정해진 구멍에 넣을 때까지의 타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와 매치 플레이 방식이 주로 행해진다. 스트로크 플레이는 전체 18개 홀을 끝내고 가장 적은 타수로 끝낸 선수가 우승하는 경기이다.

또한 매치 플레이는 두 선수가 승부를 겨루는 방식이다. 골프는 기준 타수인 72타보다 적은 타수로 넣으면 유리하다. 파(Par)는 공을 홀에 넣기까지 각 홀에 정해진 타수를 말한다. 거리에 따라 파3홀(3타수 이내 공 홀인), 파4홀(4타수 이내 공 홀인), 파5홀(5타수 이내 공 홀인) 등으로 나뉘지며 보통 한 게임당 정규 18홀이 기준이 된다.

골프는 파를 기준으로 타수보다 적게 쳤을 경우 언더파, 많이 친 경우 오버파로 나뉜다. 골프는 모든 코스의 자연적인 특징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후 상황 때문에 선수들은 날씨 변화에 잘 적응해야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선수들의 골프 장비 파헤치기



“
골프는 대부분 심판원의
감독 없이 플레이된다.
골프 경기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배려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의 성실성 여하에
달려 있다.
”

자료출처

대한체육회 스포츠원 2018년 7월 기사
<매너가 골프를 만든다>
대한체육회 블로그
<슬기로운 운동생활: 스포츠 어디까지 알고
있니? 골프편>
<2020 도쿄올림픽: 정교한 기술력 '골프'>
네이버 스포츠 백과 <골프>



클럽

골프 클럽은 기본적으로 우드 1, 3, 4, 5번, 아이언 3, 4, 5, 6, 7, 8, 9번, 피칭웨지, 샌드웨지 그리고 퍼터를 포함한 14개의 클럽이 풀 세트에 이용된다. 클럽의 하프 세트는 우드 1, 3번, 아이언 3, 5, 7, 9번, 샌드웨지 그리고 퍼터가 주로 이용된다.



볼

골프 규칙에는 공의 중량도 45.93g보다 무겁지 않고, 직경은 42.67mm보다 작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프공의 선택 기준은 공의 크기, 공의 구조, 경도 등이다. 공의 구분은 공의 크기에 따라 직경이 41.15mm인 작은 공과 42.67mm인 큰 공으로 구분된다. 골프공의 표면에는 많은 홈이 패여져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딴플(Dimple)이라고 해서 공기 저항을 없애고 볼을 올리는 힘을 높게 하는 작용력이 있다.



골프복

골프복은 무엇보다도 스윙하기 편한 활동적인 옷이어야 한다. 그리고 잔디 위에서 자연과 더불어 경기가 이루어지므로, 안전을 위해 주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원색적인 옷도 선호된다. 또한 비옷이나 겨울철의 찬바람을 막기 위한 옷도 필요하다.



골프화

골프장에서는 반드시 골프화를 착용해야 하는데, 골프화는 잔디를 보호하고 스윙을 할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스파이크가 달린 신발이다.



골프장갑

골프장갑은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거나 공을 칠 때 그림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며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에만 장갑을 착용한다.



친숙하면서도 낯선 스포츠 '양궁'

부산광역시양궁협회를 찾아가다

글 _ 제1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송민수

Interview



강정식

부산광역시양궁협회 전무이사
부산도시공사팀 양궁 감독

친숙하지만 낯선 종목이 아닌 국민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당당히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종목으로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한다.

Q 양궁은 어떤 종목인가요?

양궁, 한자로는 '洋弓'이라 적으며 뜻을 풀이하자면 '서양식 궁'이라는 뜻이다. 스포츠로서 양궁의 역사는 상당한데, 1538년 영국의 헨리 8세 시기부터 시작된다. 공식적인 양궁 대회 우승자의 기록은 1673년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의 기록이 있을 만큼 스포츠로서의 양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Q 부산광역시양궁협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양궁협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43에 위치하고 있다. 협회 인근에 들어서면 협회 사무실과 양궁장, 양궁장에 함부로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이곳에 위치한 양궁장은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회 시설이 아닌 시설 공단의 보유물이다. 양궁협회는 공단에서 양궁장을 임대해 현재 사용하고 있다.

Q 부산광역시양궁협회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부산광역시양궁협회는 부산시의 양궁 팀들에 대한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의 주 업무는 부산시체육회, 대한양궁협회에서 오는 공문과 행정 조치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부산지부'로서의 부산의 각 양궁 팀들의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협회의 또 다른 주 업무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전이다. 선발전은 초등~중학생 상위 4명을 뽑으며 주로 1~2차 평가전을 진행한 후, 부산 예선전을 걸친다. 이후 선발된 학생들은 부산시 대표로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작년 부산시 대표로 나갔던 학생들의 성적은 당시 5학년인 모덕초 소속의 김수민 선수가 금메달 하나, 동메달 두 개를 목에 걸었다.



1 여자 실업팀 2 화살 수거하는 중 3 연습장면

Q 양궁선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양궁이라는 체육 종목은 전문체육으로서 관리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양궁 팀에 속한 상태로 꾸준히 훈련을 받아온다. 선수들을 취재한 결과 많은 선수들이 어린 시절 학교에 있던 양궁장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양궁에 입문한다. 주로 입문하게 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3~4학년 시기이다. 양궁선수가 되는 방법은 양궁 팀에 소속되는 것이다. 대부분 앞서 말한 3~4학년 시기 학교 팀에 입단하며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만약 양궁선수로 활동하고 싶은 학생이 자신의 학교에 양궁 팀이 없다면 협회에 연락해 양궁 팀이 있는 학교를 소개받는 것부터 시작한다. 학생이 해당 팀이 있는 학교로 전학 갈 경우 협회에서 팀을 소개해 주고 팀에 입단 테스트 등을 거치며 소속되는 과정을 거쳐 선수로 등록된다.

Q 양궁선수들은 어떤 훈련을 하나요? 선수들의 일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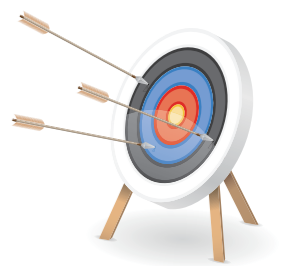
양궁협회의 양궁장에서 상주하며 훈련하는 팀들을 기준으로 선수들은 휴일은 제외하고 주 5일 동안 훈련을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슈팅 훈련을 하며 동계의 경우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한다. 슈팅 훈련은 남성 팀과 여성 팀의 거리가 다른데, 남성은 90m, 70m, 50m, 30m이고, 여성 팀의 경우 70m, 60m, 50m, 30m로 훈련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토너먼트 룰의 싱글 라운드를 기준으로 연습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양궁은 '언제나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스포츠였다.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긴 종목이었고,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였다. 다만 그동안은 양궁에 대해 단순하게만 알았다는 것이다. 그저 과녁의 한가운데를 맞추기만 한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양궁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입문하고 훈련하는지,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더 이상 친숙하지만 낯선 종목이 아닌 국민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당당히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종목으로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한다.



4 대학생부 남자팀 5 대학생부 여자팀





내 몸을 망치는 흡연... 이제 담배로부터 탈출할 때

백해무익하다는 담배. 우리는 담배가 몸에 나쁜 것을 잘 알지만 어떻게 나쁜지 잘 모른다.
담배가 어떻게 몸에 해롭고, 간접흡연을 하게 되면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70종의 발암물질 들어있어 백해무익

담배와 담배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에는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나프틸아민, 아미노바이페닐, 벤젠, 에틸렌 옥사이드, 디메틸히드라진, 비소, 베릴륨, 니켈, 크롬, 카드뮴, 폴로늄 같은 제1군 발암 물질을 비롯해 70종이나 되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중독성을 유발하는 니코틴은 물론 아세트산, 카테콜, 아세

톤 등 7,000여 종에 달하는 독성 및 유해물질이 포함됐다. 특히 담배에 들어있는 3대 유해물질로는 일산화탄소, 니코틴, 타르가 있다. 일산화탄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들어 있는 독성물질로 혈액의 산소운반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흡연을 할수록 저산소증을 느끼며 신진대사 장애와 노화현상을 겪게 된다. 니코틴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해 금연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다. 고혈압, 동맥경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 타르는 각



종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복합체로 독성이 매우 강해 기관지염, 폐렴, 폐암의 원인이 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남성 사망 중 16%, 여성 사망 중 7%가 담배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흡연은 각종 암을 발생시키는데 폐암의 경우 남성 사망의 80%, 여성 사망의 50%가 흡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외에도 방광암, 췌장암, 인후두암, 자궁경부암, 식도암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이 더 나빠... 여성·아동 건강에 악영향

보통 담배를 피지 않으면 담배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WH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만 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담배 연기는 매우 지독한데다 질긴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흡연자는 담배를 피울 때 연기가 필터를 거쳐서 입으로 들어가지만 2차 간접흡연은 농도가 2~3배 정도 높다. 연기의 입자도 미세해 폐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경우 간접흡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WHO보고서에 의하며 아동이 간접흡연을 했을 경우 폐기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힘들고 만성 또는 급성호흡기 질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간접흡연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키고,

청력 저하나 수면무호흡증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우리 사회를 위해 금연을 해야 할 때이다.

금연 환경조성이 필수...술자리는 되도록 피해야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담배를 끊기로 한 당신. 어떻게 담배를 끊어야 할까. 담배는 서서히 줄이는 것보다 단번에 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금연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우선 가급적 2주 이내로 금연 시작일을 정한다. 실행일 전날에는 재떨이나 라이터 등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물건을 치우고 흡연 장소를 청소해 금연 환경을 조성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도 알려 격려와 협조를 받는 것이 좋다. 또 술자리와 같은 흡연 욕구가 커지는 일정은 줄이는 것이 좋다.

Tip 흡연 욕구를 줄이는 4가지 행동(4D)

1. 지연하기(Delay)

흡연 욕구는 대개 3~5분만 참으면 사라진다. 정 참기 힘들면 당근(발암물질을 해독하는 '터핀' 함유), 은단, 무가당 껌 등 금연에 도움이 되는 간식을 먹으면 좋다.

2. 물 마시기(Drink water)

물을 마시는 것은 흡연 욕구를 줄이는 것은 물론 기침, 식욕 증가, 변비 같은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3. 다른 생각하기(Do something differ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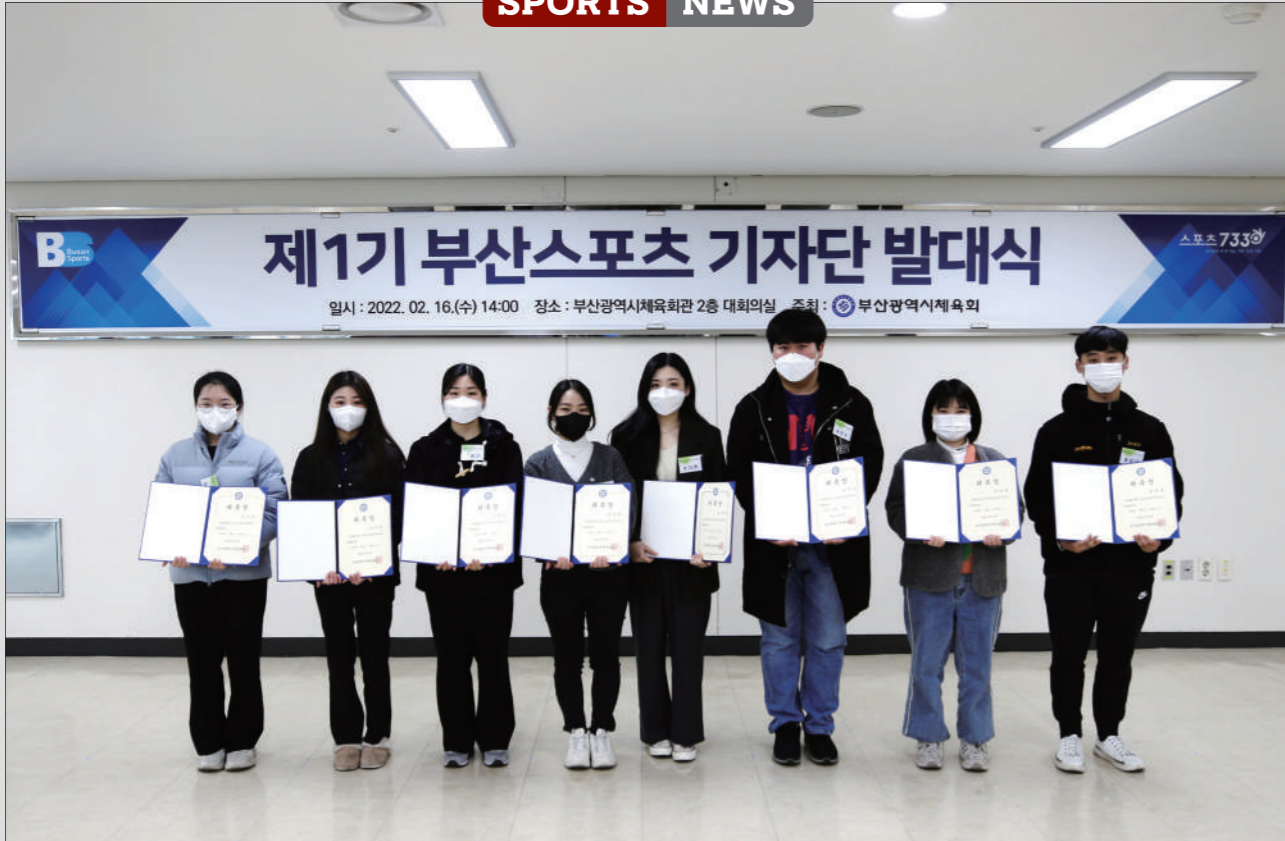
흡연 욕구가 들 때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하기,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하기, 친구와 통화하기 등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4. 심호흡하기(Deep breathing)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동작을 5분 정도 반복하면서 긴장을 풀어준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 건강인(https://www.nhis.or.kr/magazin/177/html/index.html)

SPORTS NEWS



부산광역시체육회, 제1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운영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장인화)는 지난 2월 16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첫 번째 활동을 여는 '제1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부산스포츠 기자단 위촉장 수여, 운영물품지급에 이어 주요활동과 역할 등에 대한 설명과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제1기 부산스포츠 기자단은 스포츠 현장 취재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산시민과 체육인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전달 등 부산체육의 홍보와 서포터즈 역할을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부산에는 연중 스포츠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시민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많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체육대회 및 행사, 체육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부산체육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는 '부산스포츠 기자단'을 도입하게 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인재를 만나게 되어 기쁘고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부산시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산스포츠 기자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인 SNS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사진 촬영 및 편집 등의 홍보역량을 키우면서 콘텐츠 제작·배포로 다양한 체육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SPORTS NEWS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 소장품 기증식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월 25일(금)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양정모 선수의 소장품 기증식을 개최했다.

양정모 선수는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나 건국중-건국상고를 거쳐 동아대학교에 입학하여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건국 이후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체육훈장 청룡장과 백마장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기증식에서 양정모 선수는 "여러 단체에서 기증요청을 받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 부산에 기증하고 싶었으며, 부산체육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에 기증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양정모 선수 소장품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레슬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청룡장 등 13점은 부산국제대회기념전시관에 영구 보존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대한민국 체육계의 원로이자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영웅 양정모 선수의 소장품을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잘 보존하여 지역주민과 학생, 선수들에게 부산의 자긍심과 대한민국의 명예를 고취시켜 나가겠다"라고 했다.



체육학과 소식

*본 페이지는 부산의 체육 관련학과·대학원의 교육을 시민 및 체육인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실력 갖춘 스포츠 전문인력이 되다 신라대학교 체육학부

신라대학교 체육학부는 학생 중심의 실무교육을 실천하는 명문학부로서 △실력 갖춘 전문인력 육성 △인성·리더십을 갖춘 인재 육성 △단결·자부심으로 뭉친 체육학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부 내 전공 선택권 보장...복수학위 취득 가능

체육학부는 체육학전공 특수체육전공의 2개 전공(자율전공제)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체육학부에서는 교원양성과정(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2급 정교사), 교육부 국책사업인 LINC+ 사업의 아웃도어스포츠와 스마트헬스케어 산업분야의 채용형 융합전공,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경상권 노인 스포츠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체육학과 학생들



특수체육전공 학생들

● 체육학전공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한 건강, 운동, 스포츠과학, 여가를 포함한 체육이론과 전문적인 실기교육을 병행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기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 특수체육전공

유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적응·변형 체육의 다양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교육과정

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한 교과목 이론과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기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필기시험 과목인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 윤리, 한국체육사 등을 배우며 자격종목인 58개 종목 중 학생 수요자 중심 종목과 전략적 육성 종목을 교육한다.

● 학과 강점

체육학부는 먼저 자율전공제로서 학부 내에서 전공 선택권을 보장한다. 체육학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유아 특수체육을 전공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도 취득 가능하다. 둘째, 교직이수를 통해 체육 2급 중등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체육학 전공의 경우 중등학교 2급, 특수체육전공의 경우 특수학교(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직이수자는 사범대학 개설학과 간 복수전공으로 복수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셋째,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을 운영하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LINC+사업을 통해 2개의 채용형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2개 전공은 아웃도어 스포츠디머스 인재양성전공,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인력 전공으로 23개 우수기업과 MOU가 체결돼 있으며 4학년 2학기에는 해당기업에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 다섯째, 다양한 동아리와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페가수스(플로어볼), 서프마린(패들보드), DK(헬스), O2(농구), 신유(축구), 매치포인트(배드민턴) 등의 동아리가 있으며 스포츠 산업계의 뉴스포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하우 전달을 위한 취업 졸업생들의 특강이 이뤄지고 있다.

2023학년도 신라대학교 체육학부 정시 신입생 모집 안내

1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학 수험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체육학부 지원자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실질]%		
		수능	학생부	실기
④군 일반학생	실기 실적위주	체육학부	30[6.5]	70[93.5]

3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군	전형	1순위	2순위	3순위
④군	실기 실적위주	체육학부 실기 성적 우수자	학생부 성적 우수자	모두 합격

- 기회균형선발제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평균성적을 적용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취득한 수능 표준점수 기준 (가산점 미적용)
- 학교생활기록부: 상위 10과목 석차등급 환산 점수 기준
- 위 순위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재차 발생할 시 대학입학전형관리 위원회에서 결정

4 실기고사

군	모집단위	일자	실기종목	배점
[나]군	체육학부	2023.01.18. (수) 예정	2달리기	30점
			좌전굴	20점
			수직 높이뛰기	20점

※ 각 실기종목별 2회 파울자에게는 최저점수를 부여합니다.
※ 한 종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2030년, 거대한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주목하라!



「2030 축의 전환」

저자 마우로 기엔 / 출판사 리더스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경영 석학 마우로 기엔은 디지털 환경이 활성화되고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면서 2030년에는 지금의 변화가 응집해 폭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낮선 세상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2030 축의 전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제별로 살펴본 변화의 축이 될 핵심 사안

「2030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로 인해 2030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마우로 기엔은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는 세계적인 경영 석학으로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사회 법칙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코로나

19가 변화를 가속화시키며 우리의 일상 역시 다르게 만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긴 만큼 많은 이가 출산을 미룰 것이며 기업과 공장의 생산 자동화와 지능화는 안정화 될 것이다. 격리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디지털 환경과 첨단 기술은 상용화될 것이다. 이는 공장 노동자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 인간보다 더 많은 컴퓨터와 기계가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변화는 코로나19에서 끝나지 않는다!

2030년, 세계는 더 심오하고 거대한 질적 전환을 맞이한다!



「2030 축의 전환」은 과학적 연구와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10년 뒤의 세계를 생생히 그린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있을 다음 혁명은 어느 나라가 주도할까? 출산율 감소와 점차 심화되는 고령화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후변화와 양극화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저자는 변화의 축이 될 핵심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어간다. 나아가 변화와 함께 생길 위험과 기회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전략을 제시한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처럼 저자는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 독자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게 돕는다.

새로운 기회 선점하려면 능동적 태도는 필수

「2030 축의 전환」은 2030년 임계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8개 주제로 정리했다. 인구, 사회, 경제, 기술 영역 등에 대해 다루며 10년 후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린다. 저자는 2030년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 뒤를 아프리카와 동아시아가 이을 것이며 전 세계 주요 상품이 개발도상국 중산층의 열망을 반영해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점차 두터워지는 노년층이 신기술의 수용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점점 더 많은 여성이 경제, 정치, 과학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다른 분석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동안 사회 약자로 여겨던 계층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대세로 떠오른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믿음과 행동방식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한다. 때문에 2030년을 성공적으로 맞이하려면 변화를 향한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이미 입증된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향한 능동적인 태도만이 미래 사회가 당면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볼 수 있게 한다.

저자는 글을 마무리하며 미래는 더 멀리, 더 크게 보는 자에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각 변화들을 따로 분리해 생각하지 말고 유기적으로 엮어 상호관계를 이해할 때 10년 후 맞이할 낯선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기업, 노동자,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면 「2030 축의 전환」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 1장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 2장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 3장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 4장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 5장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
- 6장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
- 7장 소유가 없는 세상
- 8장 너무 많은 화폐들

나가는 글: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감사의 글
참고 문헌

Composition of Books

NEWS

구·군체육회 소식

영도구체육회

2022년도 영도구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2월 18일(금) 행복영도장학회에서 영도구체육회장, 영도구체육회 수석부회장, 영도구청장, 행정감사,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2021년도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감사보고 등 4건을 보고했으며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등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회원종목단체 등급 심의 안내건을 토의하였다. 회의는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하고 회의장 전체를 소독하는 등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을 썼으며 안전하게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부산진구체육회

부산진구체육회 2022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산진구체육회는 매년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종목으로는 탁구, 배드민턴과 같은 구기종목과 근력을 기를 수 있는 바디펌프, 필라테스 외 8종목이다. 올해는 운동을 처음 접하거나 기초단계에서부터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는 구민들을 위해 기초스트레칭 수업을 신설했다. 부산진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활력 있는 삶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래구체육회

2022년 2월 동래구체육회 정기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개최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2월 18일(금)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체육회장, 부회장, 이사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동래구체육회 정기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계획 보고 △2022년 동래구 체육 꿈나무 장학생 선발 계획 보고 △2022년 동래구체육회 상설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보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체육회 SNS 홍보 운영 보고 △동래구체육회 2021년도 사업실적·결산(안) 및 감사 보고 △동래구체육회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동래구체육회 정관 전부 개정(안) △동래구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등을 심의하였다. 총회 후 체육회 회원들은 동래구 체육 발전과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하구체육회

신속항원검사소 자원봉사 지원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2월 5일(토)부터 코로나19의 검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육회사 무실 옆에 설치된 신속항원검사소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신평레포츠공원 내 테니스코트에 설치된 신속항원검사소는 PCR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방역패스를 받기 위해 온 시민들로 붐볐다. 체육회 회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금정구체육회

2022년 금정리그 개막

금정구야구협회는 지난 2월 13일(일) 금정구민운동장에서 ‘2022년 금정구야구협회 금정리그’를 개막했다. 대회는 매주 일요일 경기를 진행하여 9월까지 8개월간의 페넌트레이스를 벌일 예정이다. 협회 소속 16개 클럽 동호인들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참가선수와 스태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강서구체육회

강서구체육회 운영위원회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2월 8일(화) 강서문화원 3층 세미나실에서 운영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규정제정(3건) 및 개정(2건)의 건 △2021년 추진사업 및 예산결산 승인의 건, 2022년 추진사업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보고·의결하였으며, 기타 안건 토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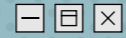
연제구체육회

2022년 연제구체육회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2월 28일(월) 연제구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대의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연제구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2021년도 임시정기총회 결과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보고하였으며 △2021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 정관 전부개정(안) △부산광역시연제구합기도 정회원단체 승격(안) △부산광역시연제구골프협회 준회원단체 승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센터 인포 Center Information



부산국민체육센터



1 꿈나무체능단 신학기 시작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의 신학기가 3월 2일(수)부터 시작됐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개학에 앞서 봄 방학 기간 동안 교실 환경구성과 환경계사판 꾸미기, 이름표 제작 등을 진행하며 새로운 단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센터 측은 “교

사로서 엄격하게 엄마처럼 따뜻하게 학생들을 지도해 반듯한 품성으로 아이들이 자라도록 안내해 안전하고 즐거운 체능단 생활이 되도록 돕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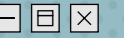
영도국민체육센터



1 2022년 영도국민체육센터 '찾아오는 생존수영' 홍보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달 각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오는 생존수영' 수업 홍보에 나섰다. 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물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하게 행동하고 학생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찾아오는 생존수영'을 실시한다. 특히 센터 소속 지도자들은 아이들의 눈높

이에 맞게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영교육을 통한 신체의 균형적 발달 및 심폐기능 강화 △학생건강유지 및 기초체력 향상 △수영교육을 통한 수상에서의 자신감 고취 및 공포감 해소 △학생들의 물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 보호능력 강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1 센터 환경개선 공사 완료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2월 12~13일(토, 일) 양일간 시설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했다. 노후화된 락커와 벽지, 장판을 전체적으로 교체해 탈의실 내부를 깔끔한 느낌이 나도록 새 단장했다. 센터 측은 “코로나로 움츠려 들어있던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체육센터가 활력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 헬스장 새 머신 입고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헬스장 회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헬스기구를 입고했다. 새 기구는 일명 '천국의 계단'으로 알려진 스테어 클라이머. 이 기구는 실제 계단을 오르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구로, 최단 시간에 최대의 운동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측은 “앞으로도 새로운 운동기구를 더 입고해 지역민들이 다양한 기구로 스포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EWS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식

부산광역시,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서 종합 3위 달성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한 부산광역시선수단은 서울, 경기에 이어 종합 3위를 달성하며 장애인동계체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체전에 부산광역시는 7개 종목 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스키장 하나 없는 부산의 지리적인 여건과 설상·빙상 등 전용연습 공간 또한 부족한 훈련환경 속에서 부산광역시 선수단이 은메달 3개, 동메달 11개로 11,646점을 획득하며 종합 순위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선수단 모두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애초 종합 6위를 목표로 했던 부산선수단은 혼성 휠체어컬링에서 실업팀 강원을 꺾고 4위에 오르며 선수단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이외에도 쇼트트랙(빙상)에서 2개의 은메달을, 스키종목인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에서 선수들이 선전해 목표를 초과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크로스컨트리 여자 시각 이현미 선수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형준)는 동계종목 불모지인 부산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체계적인 전지훈련 지원 및 동계종목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계스포츠 지도자 확충, 훈련장 확보 및 장애인스포츠선수 고용 등을 통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혼성 휠체어컬링 선수들



혼성 휠체어컬링 스톤 투구(딜리버리) 장면

NEWS

부산공공스포츠클럽, 회원종목단체 소식

거점스포츠클럽

01. 부산일보 “거점스포츠클럽 전국대회 성적 우수…명문스포츠 클럽으로 자리매김” 뉴스 게재

거점스포츠클럽은 지난 2월 8일(화)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실시, 2월 14일(월) “명문스포츠클럽으로 자리매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부산일보에 게재됐다. 거점스포츠클럽은 2017년 발족해 지난해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조 여자초등부 도마 1위, 펜싱 전국 단체전 3위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스포츠클럽사업의 효과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

01. 2022년 청소년 스쿼시 주말리그 참가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은 (사)대한스쿼시연맹에서 주관·주최하는 2022년 청소년 스쿼시 주말리그에 총 3회 출전(1/8, 1/15, 1/22)했다. 리그는 전 지역 소속 13세 이하, 16세 이하, 19세 이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대회 3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했다. 특히 클럽 소속 초등부 오재원 회원은 우수한 기량으로 초등부 3등을 기록,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02. 2022 김천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 3위 입상

2022 김천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가 지난 2월 24일(목)부터 2월 27일(일)까지 김천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개최됐다. 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빠짐없이 지킨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거점스포츠클럽 소속 여자 새싹부 김서진 학생이 복식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선수는 언니를 따라 거점스포츠 클럽 테니스 취미반에 발을 들였으며 전문선수로 전향, 열심히 훈련해 좋은 결과를 거뒀다.



부산광역시산악연맹

01.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산악’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종합3위

부산광역시산악연맹이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산악’ 아이스클라이밍 대회에서 종합 3위를 기록했다. 대회는 남녀 일반부 리드와 스피드 경기로 나뉘어 진행됐다. 부산광역시산악연맹은 남자 일반부 스피드, 리드, 여자 일반부 리드 경기에 각각 참가해 남자 스피드 부문에서 양명욱(부산, 빌라알파인) 선수가 1위를, 황현우(부산, 빌라알파인) 선수가 13위를 각각 기록했다. 리드 부문에서는 여자 일반부 김정민(부산, 부산클라이밍) 선수가 3위를, 남자 일반부 권영혜(부산, 부산클라이밍) 선수가 4위를 기록, 부산광역시산악연맹은 종합 3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대회로 치러졌으나 선수들은 경북 청송의 하얀 얼음벽을 배경으로 최고의 기량을 뽐냈다.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

바로 그곳에 (주)일동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변치 않는 가치와 자부심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건설리더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일동

일동토건(주)

미라주건설(주)

태하건설(주)



시안공원 일동미라주 시티



부산항 일동미라주 더오션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



신장유 일동미라주



부산 연산동 일동미라주



진주 강남동 일동미라주



김해 관동동 일동미라주 더스타



부산 영도 일동미라주



울산온양 일동미라주



울산 대곡동신지구U-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

2007년
대통령 표창 수상

2010년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0년
부산문화대상
경영부문 수상

양방향 척추내시경!



당신의 척추·관절 질병과 싸워줄 박원욱병원!

척추·관절·뇌질환·스포츠의학·통증치료



개인별 스포츠의학 재활치료 시스템

박원욱병원

진료 시간: 월요일 09:00 ~ 18:00, 화요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3:00, 점심시간: 12:30 ~ 13:30

진료 내용: 척추·관절(정형외과, 신경외과)/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병원 위치: 지하철 2호선 광안역 5번 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4)

전화 문의: 1544-7582, www.parkspine.co.kr www.scoliosis.co.kr



BRONS 브론스 / 커피 파우치 음료

자연생각

자연생각 / 아이스티 파우치 음료



|아메리카노|
블랙



|아메리카노|
헤이즐넛향



|애플망고|



|청포도|



|복숭아|

HEE CHANG

YANGSAN

CAFÉ 봄봄

BRONS COFFEE

자연생각

본사 / 50592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7길 45 / TEL | 055-911-3000 / FAX | 055-912-1212 / www.heechang.com

E이로운 S세상을 G그리다
BNK 금융그룹



BNK부산은행은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언택트 릴레이 봉사, 리플 환경운동 등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BNK 부산은행이 세상을 응원하는 방법

조금 달라진 세상,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BNK부산은행이 먼저 찾아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구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일에 앞장서며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